

# DIT 마을재생의 문화적 기반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21세기 밀레니얼 세대를 대표하는 트렌드 중 하나가 메이커 문화이다. 메이커 산업 미디어 ‘메이커 올’은 메이커(Maker)를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한 창의적인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만드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든 결과물과 지식·경험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메이커와 메이커 운동이라는 용어는 2005년 창간된 메이커 매거진에서 처음 소개되었고, 이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메이커의 특징은 대중화된 도구의 사용과 공유와 협업이다. 메이커는 일반적으로 창의적 만들기를 실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공유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메이커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대중적 도구와 장비로는 3D 프린터, 3D 스캐너, CNC 정밀 조각기, 레이저 커터 등이 있다.

선진국이 메이커 운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업이 정신의 대중화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은 2014년 메이커 페어에서 메이커가 기업 생태계의 뿌리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의 주인공은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 창업가, STEM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이라며 “메이커의 창의성을 촉발하고 발명 및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미국인을 초청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

도 2015년 “메이커는 사람들 속에서 기업가 정신과 혁신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그러한 창의성이 중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 엔진”이라고 주장하였다(메이커 올 홈페이지).

공예와 하이테크 산업에서 시작된 메이커 운동이 이제 마을재생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DIT(Do It Together) 마을재생으로 불리는 이 운동은 주민과 운영자가 건축물의 수리,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마을재생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DIT 방식에 의한 마을재생에서 저예산으로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 참여로 마을재생의 창의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등 기존 기업 중심의 마을재생이 창출할 수 없는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리노베이션 스쿨 제주, DIT 페스타, 작업반장 등 한국에서도 DIT 마을재생 사업이 시작되었다. DIT 마을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도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메이커 문화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국에서 메이커 중심의 마을재생이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살펴본다. 메이커 문화가 보편적인 문화로 정착되려면 이를 건인하는 탈물질주의 문화의 수용이 선결조건이다. 한국에서는 개인주의와 대안문화를 지향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메이커 문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 메이커 문화의 역사

메이커 문화는 새로운 문화가 아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생활에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어 썼다. 현대의 메이커 문화가 다른 점은 사용하는 장비와 도구이다. 과거에는 간단한 공구를 사용하였다면 지금은 디지털 제작기술과 메이커 스페이스 등 발전된 기술과 공간을 활용한다.

현대 메이커 문화의 뿌리는 DIY 문화다. DIY(Do It Yourself)는 전문가나 장인의 도움 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고, 고치고 수리하는 작업을 칭한다. 미국에서는 1912년부터 주택 개조(Home Improvement)와 수리 분야의 전문 용어로 사용되었고, 1950년대에 일반 시민이 레저와 경비 절감 활동으로 추구하는 다양한 수리, 리모델링, 공예품 제작, 건축 활동을 의미하는 보편적인 용어가 되었다.

DIY 문화는 미국·영국·유럽과 같이 다수의 시민이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사회에서 활성화되었다. 단독주택 국가에서는 어느 마을에 가도 DIY 활동을 지원하는 잡화점과 철물점을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도 단독주택과 DIY의 관계를 감지할 수 있다. 서울에서도 연희동·연남동 등 단독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DIY 활동이 활발하다.

DIY 문화의 또 다른 뿌리는 저항문화이다. 19세기 보헤미안을 중심으로 당시 사회를 지배하는 대량생산·대량소비를 추구하는 부르주아에 저항하는 저항문화가 시작되었는데, 그 중심에 상품을 도구로 직접 생산하는 아티잔이 있었다. 영국의 미술공예운동과 프랑스의 아르누보 등이 생산 방식을 대량생산 체제에서 장인의 가치가 담겨 있는 아티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대표적인 저항운동이었다.

서구의 DIY 문화는 1960년대를 거치면서 다시 부활한다. 1960년대의 청년문화를 주도한 히피 운동의 중심이 정치투쟁에서 생활혁신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DIY가 히피 생활 방식의 상징으로 떠오른다. 1968년 처음 발행된 <전지구목록(The Whole Earth Catalog)>이 DIY 생활문화의 가이드가 된다. 1968년에서 1972년 사이에 정기적으로 발행되던 잡지로 대안적 라이프스타일의 핵심 개념인 자급자족, 생태, 대안 교육, DIY, 홀리즘을 실현할 수 있는 생활기술·도구·상품을 소개하였다. 2000년대 이후 한국에 도입된 많은 라이프스타일 아이디어와 상품의 기원을 이 잡지에서 찾을 수 있다.

<전지구목록>은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1960년대 구글'로 소개하면서 다시 유명해졌다.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 연설에서 인용한 명언 “늘 배고프고, 늘 어리석어라(Stay Hungry, Stay Foolish)”도 <전지구목록>의 커버에 쓰여 있던 카피이다. 이 잡지를 발행한 스튜어트 브랜드(Stewart Brand)가 자신의 생활혁명 철학을 이렇게 설명한다.

“1960년대 뉴레프트는 우리에게 풀뿌리 정치권력의 행사를 요구하였지만, 우리는 그 대신 풀뿌리 직접 권력(Direct Power)의 행사를 지지하였다. 즉 (생활의) 도구와 스킬이다(모종린 2020).”

<전지구목록>의 키워드는 도구(Tool)이다. 도구는 목공, 석공, 가드닝 등에 필요한 공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서적, 잡지, 강좌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정보도 도구에 포함되었다. <전지구목록>의 DIY 정신은

1970년대 다양한 분야의 실험주의와 혁신으로 이어진다. DIY 주택개조(home improvement) 관련 서적도 이때 다수 발행되었다.

DIY 문화가 하이테크 도구와 결합되어 메이커 문화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해커들이 가교 역할을 하였다. 미국과 독일의 메이커 문화는 해커 스페이스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해커 스페이스는 해커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 도구 그리고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간이다. 상업적 해커 스페이스 외에도 MIT와 카네기멜론 등 컴퓨터 과학이 발달한 대학의 연구소가 해커 문화의 배양지이다.

DIY 문화의 확산을 촉진하는 또 다른 트렌드가 환경주의이다. DIY 환경주의는 시민이 DIY를 통해 환경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DIY 환경주의자들이 1960년대 히피들이 그랬듯이 도시를 떠나 자연에서 기술을 활용한 자연주의 공동체를 직접 건설한다.

## DIY와 마을재생

마을재생의 DIY와 메이커 문화에서도 저항주의와 탈물질주의의 영향을 찾을 수 있다. DIY 어버니즘이 저항주의 DIY 도시문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1970년대 이후 뉴욕 등 대도시에서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버려진 골목이나 건축물을 그래피티(Graffiti), 게릴라 미술로 장식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들 독립 예술가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도구를 가지고 새로운 공간과 공동 예술작품을 만든다는 점에서 DIY 문화를 실천한다. DIY 어버니즘은 이후 게릴라와 커뮤니티 가드닝, 주택과 리테일 협동조합, 플래시 모빙(Flash Mobbing), 사회적 경제와 대가 교환(Bartering) 장치, 무단점유 등 다양한 어번 행동으로 진화하였다.

개인 차원에서도 건축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DIY 재생문화가 확산된다. 노후 주택이나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공간을 구성하고, 공간을 재생할 때 건물주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남기는 등 다양한 형태로 DIY를 실천한다.

DIY 문화의 가치를 인식한 지자체도 DIY를 활용한 다양한 마을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갖고 있는 시설을 고쳐서 쓰자는 의미의 마을재생은 DIY와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들이 직접 기획을 통해 자신들의 주거지를 변화시키는 ‘사람 중심’의 마을재생이다.

주민 주도의 마을재생이 주목을 받으면서 옥탑방과 반지하 등으로 노후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 오롯킴퍼니, 지역 내 비어 있는 집의 활용방안을 구상해서 소유주에게 제안하는 플랫폼 리노베링 코리아 등 DIY 마을재생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나타났다.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DIT 사업도 DIY 마을재생의 새로운 유형이다. 공간 운영자, 건축주,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지역의 주체들이 함께 건물의 리노베이션 과정에 참여하는 DIT 방식은 지역에 대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고 공간 운영자와 주민 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윤주선 외 2020).

### 문화적 이해에 기반한 합목적성 전제해야

메이커 문화가 주는 마을재생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메이커 스페이스, 메이커 장비, 메이커 지원 등 메이커 생태계의 물리적 요소의 확충으로는 부족하다. 메이커 문화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메이커 생태계를 지탱하는 기반 문화는 탈물질주의와 저항문화이다. 서구의 DIY 문화가 개인, 다양성, 삶의 질을 중시하는 탈물질주의가 확산되는 1970년대에 범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의 DIY 문화도 탈물질주의에 개방적인 밀레니얼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한국 사회가 다수의 혁신적 메이커가 나타나 자신의 지역을 재생하는 미래를 원한다면, 메이커 문화에 개방적인 탈물질주의를 우선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실제 사업에서는 주민과 운영자 교육이 중요하다. 마을재생 주체가 DIY 문화의 역사적 맥락과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문화적 기반을 이해해야 DIT 마을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메이커 올 홈페이지. <http://www.makeall.com>
- 2 모종린. (2020). 나다움으로 충분할까: 라이프스타일 인문학의 제안, 브런치북. <https://brunch.co.kr/brunchbook/lifestyle-guide>
- 3 윤주선, 장민영, 김영하. (2020). 마을재생 시공학 개론-DIT 마을재생. 건축도시공간연구소.